

세계 첫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로 수난

코오롱그룹은 창업주 고(故) 이원만 회장이 1951년 일본에서 설립한 삼경물산이 모태로 우리나라에 나일론을 독점 공급했다. 1954년 개명상사를 세운 후 1957년 4월 국내에서 직접 나일론을 직접 생산할 목적으로 한국나이롱 주식회사를, 1969년에는 한국포리에스텔을 추가로 설립했다.



1977년 한국나이롱과 한국포리에스텔을 합병해 코오롱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이후 패션, 건설, 유통, 정보기술(IT), 바이오, 석유화학, 헬스케어, 보험, 정보통신 등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확장했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 코오롱에 입사해 미국 뉴욕지사, 일본 도쿄지사 등 주로 해외에서 근무하며 경영수업을 받았다.

2009년 12월 코오롱그룹은 모회사인 코오롱에서 제조사업 부분을 화학산업 자재를 다루는 코오롱인더스트리로 분할했으며 코오롱은 순수주주회사 역할을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그룹기획조정실장 전무를 거쳐 1991년 코오롱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1994년 코오롱 사장, 1996년 코오롱그룹 회장에 취임하면서 '3세 경영'의 맛을 올렸다.

이용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은 고(故) 이동찬 전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아들로

이 명예회장은 코오롱의 비영리 재단법인 오운문화재단 이사장도 맡고 있다. 오

운문화재단은 내달 16일까지 제25회 우정선행상 후보자를 추천받겠다고 밝혔다. 우정선행상은 코오롱이 1999년부터 진행중인 '살맛나는 세상'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회의 선함과 미담사례를 널리 알리고 격려하고자 이동찬 코오롱 선대회장의 호인 우정을 따서 2001년 제정된 상이다. 오운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살맛나는 세상'에 소개된 사례들과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를 심사해 시상한다.

전체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받았고 상당 격적성 심사 대상에 올라 주식 거래 중지 처분을 받았다.

과거 이 명예회장은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또 검찰은 인보사의 성분을 알고도 허위로 신고한 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하고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 등으로 이 명예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그는 2020년 불구속 기소된 후 4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단지 품목 허가 시험 검사 서류상에 기재된 성분과 실제 제조·판매된 성분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거라 평가하고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2019년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 중이던 '인보사'의 일부 성분이 연골세포 대신 중앙 유방 위염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로 드러나면서 그해 5월 인보사는 식품의약품안

그러면서 "이 시기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한 인보사는 식약처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실제로 시험 검사 대상이 됐던 제품과 완전히 동일한 제품인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 변경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용열

코오롱 명예회장



연합뉴스

발했다.

이어 "인보사 2액 세포 성분 착오에 관한 코오롱생명과학과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도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30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2019년까지 판매한 인보사를 품목 허가 때와 다른 의약품으로 단정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주들이 이 명예회장이 소유 중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단독주택(사진)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고 법원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명예회장 개인 부동산 재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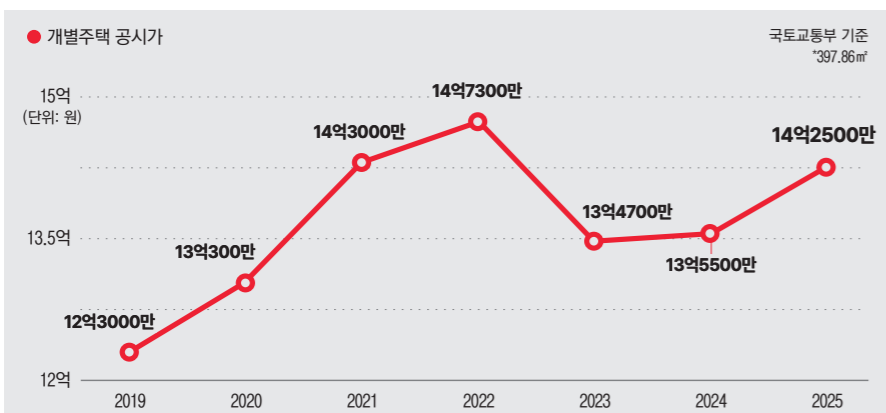
여기에 검찰이 불복하면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추후 열릴 2심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가압류된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 대지면적 197.1㎡(약 596.22평), 연면적 1177.13㎡(약 356.08평) 규모로 2001년 준공됐다. 지하 1층 미술관(416㎡, 125평)을 제외한 지상층 모두 주택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59억3200만 원으로 시세는 100억~150억 원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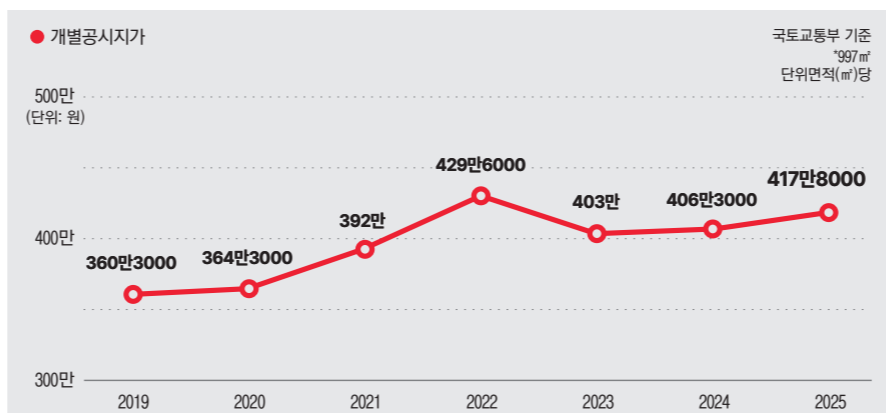
한편 인보사의 신약 허가 취소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본 코오롱티슈진의 소액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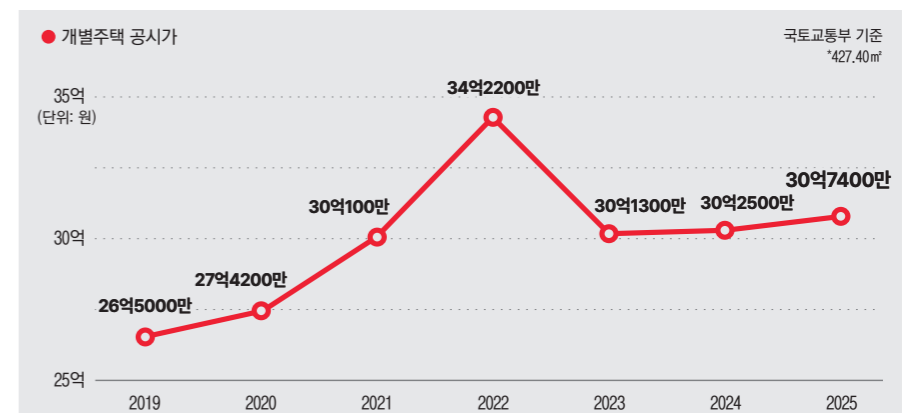
단독주택



토지



단독주택



정형돈

현방송인



동했던 한유라 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이 있다. 부부는 SBS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 리 특공대'에서 방송작가와 출연진으로 만나

인연을 맺었다.



정형돈은 2002년 제17회 KBS 신인 개그맨 선발대회 입상 후 KBS 공채 개그맨이 돼 '개그콘서트'를 통해 인지도를 쌓았다. 이후 우리나라 예능사에 한 획을 그은 MBC '무한도전' 초창기 멤버로 2005년 발탁돼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10년 이상 특유의 존재감으로 활약하며 출연진들과 절묘한 호흡을 자랑했다. '무한도전'이 MBC 간판 예능 프로그램으로 거듭나면서 KBS '우리동네 예체능',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MBC '굿데이' 등 다양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2009년 CF 모델, 연기자, 방송작가로 활

홍원식

전)남양유업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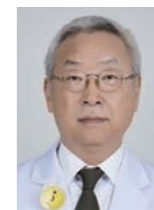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남양유업 기획실 부장으로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았다. 1977년 이사에 올라 경영에 본격 참여했으며 1988년 부사장, 1990년 대표이사 사장 등을 지냈다. 연구개발에 매년 수십억 원을 투자해 우유, 분유, 불가리스 등의 제품의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 2003년 회장이 된 후 건설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 전문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겼다. 이후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저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재를 받아 여론이 악화됐다. 또한 현재 홍 전 회장 일가는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월 홍 전 회장이 오토크경영을 마친 뒤 한한컴퍼니가 남양유업의 새 주인이 됐다.

이명목

현)부천세종병원 원장



이명목 부천세종병원장은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내과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병원 내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81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1984년 서울대 의대에 부임해 서울대병원 수련의, 의대 전임강사·의학과 내과학교실 부교수, 서울대 내과계 중환자실장 등을 맡은 후 자리를 옮겨 동국대 일산병원장의 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이 병원장은 2016년 부천세종병원에 부임해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의료현장 일선에서 치료에 적극 임하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지역



보건 체계 강화, 나눔 실현 등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해 부천시시장으로부터 유공 시민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부천세종병원이 경기 부천·광명을 아우르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는데 수장으로 서 핵심 역할을 했다.

북한 보위부 비밀 요원의 자유·인권·민주주의 향한 여정



신문사 추천도서

한국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세 번의 탈북·세 번의 체포... 中 연길 감옥·北 보위부·안전부 감옥 수기
희망 잃은 땅을 떠나며 피로 쓴 원고... 폭정 종식 앞당기는 무기 되길

“이 글이 북한에 복수할 유일한 길”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천만 북한 노예들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예주와 사이 좋게 지내려는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평범한 인텔리 한원재 씨가 남긴 이 글을 통해 북북 주민들의 절규에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응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길 바란다. -태영호(전 북한외교관)

질식할 것 같은 고통과 당장 닥칠 것만 같은 죽음의 공포가 배인 저자의 거친 숨결이 행간마다 강렬하게 녹아있다. 목숨과 바꾼, 중국과 북한의 감방에서 절규하며 피로 쓴 이 수기가 노예공화국 북한의 폭정 종식을 앞당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길 소원한다.

-이명현(전한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노예 공화국 북조선 탈출